

전남 동부권

GS칼텍스 문화예술공원 '예술마루'

직영체제나, 재단설립이나

여주시·의회 중간역역 보고회서 운영권 놓고 의견차

GS칼텍스가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공원 '예술마루'의 운영을 놓고 여주시, 시의회 등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22일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달 초 GS칼텍스가 마련한 예술마루 운영 계획에 대한 중간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으나 의견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운영 방안은 ▲재단설립 운영 ▲공영장 전문 기업 위탁 운영 ▲공영장 전문 기업 3년간 위탁 운영 이후 재단 법인 설립 ▲GS칼텍스 3년운영 이후 재단법인 설립 등이다. 예술마루를 최고 수준의 전문 공연장으로 운영할 경우 연간 최대 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수입은 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충안(전문공연장+대관 등)으로 운영할 경우는 운영비가 30억원 정도 소요되고 수입은 6억원으로 추산됐다. 여주시민회관 수준의 단순 대관 정도로 운영할 경우도 운영비는 13억 가량 소요되고, 수입은 2억7000만원에 불과해 어떤 방식이든 상당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은 성공 사례가 없어 고려하지 않고 있고 다만 별도 재단을 설립해 할 것인지, 아니면 GS칼텍스 재단이 직접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정병재 부시장은 "GS칼텍스가 운영을 직접한다. 안한다든 가부를 현재 기다리고 있다"며 "칼텍스가 안한다면 시가 재단을 설립해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여주시의회는 이미 지난 2009년 2월 예술마루 부지 매입 당시에 GS칼텍스가 재단 상임이사 명의로 제출한 각서에 따라 GS칼텍스가 직접 3~4년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주시의회 서완석 부의장은 "초기에 예술마루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GS칼텍스가 각서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3~4년 후에 재단을 설립할 바에는 처음부터 재단을 설립해 GS칼텍스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망마산과 장도 일대 21만여평에 조성중인 예술마루는 현재 공정을 32%로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도에 들어 설 미술관을 비롯한 카페테리아,아뜰리에 등의 부대시설은 201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고흥 풍양 농공단지에 섬유질 배합 사료공장

고흥군 풍양면 농공단지에 청보리 등 조사료를 활용, 섬유질 배합사료를 만드는 공장이 들어섰다.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공장(TMR)은 부지 5493㎡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했으며 비육우, 번식우 등 4종의 배합사료를 연간 1만2000여톤 생산한다. 이 공장에서는 청보리, 유자 가공 부산물 등을 액상 미생물 등과 혼합, 발효시켜 사료를 생산하며 한우의 기호성과 소화율을 높여 육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취재본부=주경희기자 gju@

군은 또 원활한 조사료 생산과 공급을 위해 조사료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생산된 한우 판로 등을 위한 전국적인 유통망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공장 가동으로 한우와 젓소 사육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지역에서는 3653농가가 한우 3만8440마리를, 33농가가 젓소 1914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주경희기자 gju@



순천만 찾은 주한 외국대사들. 지난 21~22일 순천을 방문한 주한 외국대사들이 순천만을 둘러보고 있다. 순천시시는 내년 4월 열리는 국제 정원박람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미국·브라질 등 9개국 한 외국대사를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순천시 제공>



시민과 함께하는 교실밖 작은축제

순천 청암고학생들 개발한 끼 뽐내

"기존에 생각했던 특성화 고교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네요." 순천 청암고등학교가 시민들에게 교육과정을 개방하는 등 학교안에 서만 머물렀던 학교교육을 지역민과 사회에 접목시켜 호응을 받았다. 순천청암고등학교는 최근 순천 조례호수공원 일원에서 학생들의 재능을 보이는 '교실밖 작은 축제'를 개최했다. 특성화 학교인 순천 청암고는 학생들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해보자는데 착안해 '교실밖 작은 축제'를 열었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발한 소질과 개성, 끼를 학교 안이라는 좁은 틀에서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민과 사회에

손을 내밀고 함께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비전과 학생 개개인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선보였으며, 학교 측은 교육 과정을 개방함으로써 시대적 감각과 안목을 높이고 있다는 자신감을 지역민과 사회에 뽐냈다. 학생들은 아름다운 자태로 선보인 다도 시연을 비롯해 댄스팀 공연, 고등학생 작품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패션쇼, 도예작품, 염색 등 볼거리를 선사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체험관에서는 다도, 염색, 간호(생활화학, 무로진료), 피부미용(피부미용, 타투, 네일아트) 등이 마련됐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매실·감 곡성 대표 농산물로 키운다

2014년까지 158억 지원

곡성군이 매실재배를 확대한다. 곡성군은 지난 21일 곡성 문화센터에서 매실관계 농가 및 공무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생산기술에 따른 매실 확대재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곡성군이 다품목 소량 생산으로 전국에 일굴 있는 명품 농산물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

동력 고령화에 따른 경영비 절감과 맞춤형 선도작목으로 매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12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3년간 1400ha의 면적에 총 사업비 158억을 선도작목인 매실과 짧은감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식재 및 가공, 유통, 체험, 숙박의 융·복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향

상을 통해 명품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석 곡성군수는 "이제는 농업도 돈버는 상업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2차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곡성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키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경기자 kjkim@

전 북

무주 머루 수확 한창



무주군 일대에서 요즘 머루 수확이 한창이다. 연간 350t을 생산해 1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무주 머루는 군내 5개 머루와인 공장과 생식품, 경동시장 등에 대부분 계약 재배돼 판매되고 있다. <무주군 제공>

'오수 義犬' 관광지 조성 중단 위기

도 애견학교·동물병원 등 사업성 없어 공사 중지 명령 오수견 복원사업도 불투명... 성곽없이 예산만 날릴 판

임실군이 세계적인 애견 관광지를 만든다는 취지로 추진해온 '오수 의견(義犬) 관광지' 조성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중단위기에 놓였다. 임실군은 지난 2003년부터 오수면 금암리 250일대 20만8000㎡에 26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군은 208억원을 사업비를 들여 진입로, 교량, 주차장, 중앙광장, 야외공연장, 산책로 신설 등 단지조성을 마무리했다. 당초 사업으로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 관리사무소, 오수견 육성사업장을 신축했으나 올해 사업은 전북도의 사업성 의문으로 중단시켰다. 도는 당초 관광지 조성사업은 오수

개를 복원하고 이를 이용한 연계사업으로 애견 전시장, 애견학교, 동물병원, 훈련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나 오수개의 혈통이 보전돼 있지 않고 확실한 유전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견해이다. 애견산업으로 전환하기까지는 대도시와의 접근성, 애견인구의 유입성, 일회성 축제로 전락할 우려와 주민의 소득증대에 한계 등도 들었다. 사업추진에 가장 중요한 의견 복원사업은 오수개의 특징에 맞는 견종을 육성한다는 것은 정체성이 없어 입증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10여년간 진행해온 오수견 복원사업은 어렵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대

▲오수의견=고려 때인 1230년 최자(崔滋)가 쓴 '보한집'에 소개된 오수 의견은 산불이 나자 숲에 취해 잠든 주인을 구하려고 온몸에 물을 적서 주인을 구하고 죽은 것으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반해 오수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의견문화진흥회 광평은 회장인 "현재 오수개의 실체를 만들어 복원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예산이 끊겨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며 "복원사업이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KTX 남원역 정차 5회로 해달라"

코레일 2회 감차에 지역민들 원대대로 조정 요구

전북 남원시민들은 21일 다음달 5일부터 전라선 KTX 운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남원시민들이 남원역 KTX 정차횟수가 5회에서 3회로 줄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당초 전라선 KTX 운행은 여수~순천~남원~전주~서울 노선으로 계획됐으나 곡성과 구례역에 각 1회 정차기로 하면서 남원역은 3회로 줄었다. 특히 남원역과 곡성역은 17.6km에 불과하고 곡성-구례역은 20.3km, 구

례-순천역은 28km로 인접지역에 있어 빠른 수송을 자랑하는 KTX의 잦은 정차로 남원역은 물론 인근지역인 임실, 장수, 순창, 함양 등 이용객의 혼란이 예상된다. 시민 황남주(45·도동동) 씨는 "빠른 이동수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KTX를 인접지역에 배급 주는 식으로 분산시켜 정착하도록 한 사례는 어느 곳에도 없다"며 "원래 계획대로 정차 횟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김제 민·관·경 참여 청소년 순찰대 발대

김제시와 김제경찰서는 22일 김산공원에서 전국 최초로 민·관·경이 참여하는 청소년 순찰대를 발대했다. '지평선 프로미'로 이름 붙인 청소년 순찰대에는 지역 각 공공기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청년회의소, 봉사단체 등의 회원 500여명이 참여한다. 이견식 시장과 조용식 시장은 "행정과 경찰, 민간기관이 협력해 김제를 안전하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청소년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시민의 동참을 촉구했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

뉴스 브리핑

'나들가게' 전환 동네 슈퍼 86곳 지원

전북도와 시·군은 올해 3억 원을 들여 '나들가게'로 전환한 동네 슈퍼 중 86개를 선정해 'BUY 전북 인증상품'과 시군의 특산물을 판매하도록 진열대와 병장고의 설치를 지원한다. 나들가게는 쇼핑 환경과 가격, 위생, 서비스, 정보화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점포로 점이 있어 내 집같이 편

하고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로 도내에는 180여 개가 영업 중이다. 대상은 정읍(28개), 전주(20개), 남원(16개), 군산(10개), 익산(8개), 부안(4개) 지역 점주로 10월 6일까지 해당 시·군이나 도 민생경제과(063-280-3786)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해경 단속에 음주 선박 크게 줄어

전북 관내 해상의 음주 운항이 해경의 강력한 단속 덕분에 큰 폭으로 줄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올해 들어 이달 현재까지 음주 운항으로 단속된 선박은 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는 해경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 단속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경은 올해 초부터 음주 운항 단속을 상시체제로 전환하고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 단속을 펴왔다. 군산해경은 주요 항·포구에서 기습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저가 항공 '이스타' 전주서 한마음 대회

군산에 본사를 둔 저가항공사 '이스타 항공' 그룹이 23~24일 전주에서 한마음대회를 연다. 이번 한마음대회에는 이스타 항공그룹 산하 15개 계열사와 3개 협력업체 임직원 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마음대회는 인기 그룹과 가수의 초청공연, 체육대회로 나

어 진행된다. 23일 밤 인기가수 초청 공연에는 '롤리폴리'로 큰 인기를 끄는 걸 그룹 티아라, 달샤벳, 이스타, 다비치, 박강성, 밴드 강산에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들 임직원은 24일에는 체육대회에 참가한 뒤 관광지를 둘러보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고창군 여성 14명에 명예 읍·면장 위촉

고창군은 22일 관내 여성 14명을 2011년 제3기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명예 읍·면장은 하루 동안 주민상담 및 의견수렴, 관내 주요 사업장과 불우 소외계층 방문 등 일선행정

을 몸소 체험했다. 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을 종합해 국정발전에 대한 자문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참여 자치행정을 실천했다. /전북취재본부=윤창영기자 young@